

韓國 필름콘덴서 研究組合

새 進路를 모색하는 마일러콘덴서 業界



車 俊 德

C. N. S 商社代表
同研究組合組合長

電子業界 최초로 結成된 「韓國 필름 콘덴서 研究組合」은 部品業界에 새로운 기운을 넣어주고 있다. 모처럼 발족을 본 同 組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編輯者 註〉

오늘날 電子工業은 急速한 技術革新 産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電子 各 部門에서 技術開發 基盤이 완전히 確立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現實이다. 이 가운데 특히 部品産業은 더욱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部品産業은 그 情密性を 통해 商品質化, 高性能化, 小型化 등의 뒷받침이 되는 技術축적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固定蓄電器 中の 필름 콘덴서는 아직까지 國內의 技術이 先進國에 못미치고 있는 形편이다.

電子回路 部分品으로 필름 콘덴서는 抵抗, 코일과 함께 필수적인 構成要素가 되고있는 主要 部品이다. 그동안 國內 필름 콘덴서 業界는 10여년의 제조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先進國과의 技術격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음을 생각할 때 同業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일임을 숨길 수 없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필름콘덴서 業界는 規模의 영세성과, 伝來의 勞動集約的인 공정의 개선을 이루지 못했고, 經營 합리화에 대한 投資와 研究가 뒤따르지 못하여 世界的인 發展 추세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國內의 사정과는 다르게 이웃한 台灣의 경우는 지난 1~2년 사이에 눈에 띄도록 國際競爭力이 強化되어 있고,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2~3년전부터 年間 20~30%의 증가된 生産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製造工程의 開發과 省力化에 획기적인 發展을 가져왔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일이며, 國內 業界에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차제에 國內業界는 여러가지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電子工業振興會」의 조인을 통하여, 작년말에 「韓國 필름 콘덴서 研究組合」을 結成하기에 이르렀다. 그 직후 지난 1月 22日부터 2月 15日까지 本人은 美国, 日本, 台灣을 통한 先進國의 여러가지 技術情報와 市場動向을 調査하기 위하여 出張을 다녀온 바 있다.

□ 研究組合의 意義

「韓國 필름 콘덴서 研究組合」의 結成은 대개 다음과 같은 意義를 가지게 되며 반드시 研究組合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궁극적인 目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1) 海外 先進工業 國家의 技術水準과 技術情報 蒐集을 통한 技術分析이 適期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이와 같은 研究를 통하여 海外市場의 확대와, 製品의 高級化를 통한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해결점을 根本的이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組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不合理한 모순점 등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先行 되어야 할 것이 研究所 設置運營이다.

□ 필름 콘덴서의 技能과 役割

Myler Condenser는 축전기의 일종으로 電子回路 部分品 가운데서 抵抗, Inductance와 함께 필수적인 回路部分品이다.

최근의 경향은 材料의 開發, 工作加工技術의 研究의 進歩에 수반해서 그 형태가 보다 小型化 되어가고 있으며, 高性能 및 信賴性 向上은 끝없이 改善 되어가고 있다.

축전기는 回路에 있어서 Copacity Reactance 素子로서의 技能 外에도 直流저지를 겸한 結合用 電子回路의 力率改善用 单相電動機 分相起動用(電動機用) Condenser, 또는 일시적인 多量の 에너지 蓄電容器로서 용도 범위가 매우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 製品 용도별로 보면 家電製品으로 TV, VTR, 錄音機, 스테레오, 라디오, 인터폰 등, 自動車用으로는 CB트랜시버, 와이퍼 콘트롤, 카스테레오, 電子點火裝置, 急制御裝置, 排氣 가스 防止裝置 등이며, 産業用으로는 各種 自動販賣機, 各種 計測器, 모타制御, 雜音防止機 등으로 대략 열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필름 콘덴서의 主要 사용처와 중요도를 설명하였지만, 필름 콘덴서는(金屬化 필름 콘덴서 포함) 기타 스킵 콘덴서, 폴리

프로피텐 콘덴서, 폴리카보네트 콘덴서 등에 비해 훨씬 많이 사용되며, 이 부류의 총생산량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需要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 研究組合의 方向

國內 電子業界에서 처음 시도된 本 研究組合은 앞으로 다른 組合의 結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지만 우선 本 組合의 앞으로 나아가갈 方向을 검토함으로써 하나의 문제 제기로 그 역할을 담당해 보기로 한다.

1. 調查 情報의 보완

Myler Condenser 業界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原資材 選別 能力이 부족함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재 國內業界의 技術낙후에 기인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技術 調查의 미비에서 오는 이유가 보다 더 확실함을 보여준다.

최근 日本은 우리나라를 중요 경쟁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과거와는 달리 어떤 技術情報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國內 同業체 간에도 그나마 各社가 축적한 技術을 相互 협조하지 않게되므로 계속 技術의 낙후와 더불어 국제市場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本 組合은 이 점을 중요시 여겨 앞으로는 日本에서의 技術導入線을 바꾸어 美国이나 다른 先進國에서 情報를 빼내어 오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서는 調查情報의 確立화를 기할 것이며, 아울러 研究開發費의 투자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 세일즈맨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며, 中小企業이 가지는 경제적인 취약점을 組合이라는 共同體의 힘으로 커버해 나갈 계획이다.

2. 장기적인 안목의 실천

국내에서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本 組合이 처음 結成된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현재 國內 相關業體(대 메이커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쉬울 때이다. 日本이나 美国, 유럽에서의 研究組合의 成功은 自國의 대 메이커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이룩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안목의 협조와 더불어 本 組合의 꾸준한 研究가 아마 그 결실을 맺는데 불가결한 전인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첫 걸음이 더딜지라도 성장과 더불어 바른 걸음을 걷게 되는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国内의 部品사용業체의 협조는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3. 規格化의 통일

콘덴서 업계의 또 하나의 임무는 研究組合의 운영이 본 制度에 오르고, 研究組合으로서의 힘이 배가되게 될 때 국제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규격화의 통일에 있다. 이 규격화 문제는 국제경쟁력의 우위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각사의 기능을 서로 유기적으로 강화하여, 平準化를 시도하여 品質改善을 이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4. 海外 研修의 活性化

本 組合은 앞으로 海外 研修를 통한 技術 情報 수집을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자주 해외 연수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습득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각사의 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시키고, 기술연수자들의 業務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인재 유출을 적극적으로 커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海外연수자들의 기술기여도를 진작시키는 방편으로 연수후에 제도적으로 3년~5년까지 의무적인 근무연한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인재 관리를 法制化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올바른 인재양성을 통한 필름 콘덴서 業界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그 의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本 研究組合은 이제 각 業체의 능력의 한계에서 나온 共同体결성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않는 일이 많다고 본다.

우선 国内 大企業의 적극적인 国産부품 사용을 바라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병행해야 할 것이며, 産學協同으로, 學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바 크다.

이렇게 될 때 本 組合은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国内 電子工業 發展에 뚜렷한 部品業체로서의 명실상부한 역할이 가능해지며, 先進国들과의 技術개발에 어깨를 겨루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